

1분기 임금 일자리 50만개 늘었지만 노인 일자리 '태반'

통계청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60대 이상서 28만여개 늘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만여개 늘어났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이 반영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8000개,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 3만3000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신규 채용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10~20대 연령층(52.2%) 다음으로 높았다.

50대에서도 임금일자리가 60대 이상 연령층 다음으로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50대 임금일 자리는 396만6000개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8만7000개 증가했다.

50대 또한 보건·사회복지사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4만8000개 늘었으며, 도소매업에서 3만 2000개, 제조업에서 2만4000개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4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일 자리 수가 감소했다. 40대 임금 일자리는 458만9000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2만개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0대 임금 일자리가 각각 3만2000개, 2만5000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0대는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었다. 20대는 전년 동분기 대비 3만9000개 증가했다.

성별로는 올해 1분기 남성 임금 일자리 수가 1070만1000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만6000개(1.3%) 늘었다.

여성 임금 일자리는 754만 7000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만7000개(5.1%) 증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0대의 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남성에 비해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뉴스1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만여개 늘어났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이 반영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8000개,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 3만3000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신규 채용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10~20대 연령층(52.2%) 다음으로 높았다.

50대에서도 임금일자리가 60대 이상 연령층 다음으로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50대 임금일 자리는 396만6000개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8만7000개 증가했다.

50대 또한 보건·사회복지사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4만8000개 늘었으며, 도소매업에서 3만 2000개, 제조업에서 2만4000개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4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일 자리 수가 감소했다. 40대 임금 일자리는 458만9000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2만개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0대 임금 일자리가 각각 3만2000개, 2만5000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0대는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었다. 20대는 전년 동분기 대비 3만9000개 증가했다.

성별로는 올해 1분기 남성 임금 일자리 수가 1070만1000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만6000개(1.3%) 늘었다.

여성 임금 일자리는 754만 7000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만7000개(5.1%) 증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0대의 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남성에 비해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뉴스1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만여개 늘어났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이 반영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8000개,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 3만3000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신규 채용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10~20대 연령층(52.2%) 다음으로 높았다.

50대에서도 임금일자리가 60대 이상 연령층 다음으로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50대 임금일 자리는 396만6000개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8만7000개 증가했다.

50대 또한 보건·사회복지사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4만8000개 늘었으며, 도소매업에서 3만 2000개, 제조업에서 2만4000개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4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일 자리 수가 감소했다. 40대 임금 일자리는 458만9000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2만개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0대 임금 일자리가 각각 3만2000개, 2만5000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0대는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었다. 20대는 전년 동분기 대비 3만9000개 증가했다.

성별로는 올해 1분기 남성 임금 일자리 수가 1070만1000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만6000개(1.3%) 늘었다.

여성 임금 일자리는 754만 7000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만7000개(5.1%) 증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0대의 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남성에 비해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뉴스1

주담대 금리 연 2.47% '또 사상 최저'...10개월 연속 내리막

가계대출 금리 연 2%대 진입 사상 최저인 2.92%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0개월 연속 하락하며 두 달째 통계 편제(200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2%로 전달보다 0.20%p(포인트) 내렸다. 이는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월 연 3.48%에서 5월 연 3.49% 상승한 뒤 6월(3.25%)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탔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전 달보다 0.17%p 낮아진 연 2.4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저치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3.28%)부터 10개월째 하락세를 그렸다. 지난 4월 주담대 금리는 연 2%대에 진입했다.

나머지 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 금리(3.63%)는 0.33%p,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4.13%)는

0.24%p 각각 떨어졌다. 연 2%대로 진입한 보증대출(2.95%)은 0.16%p, 예적금 담보대출(3.02%)은 0.10%p 각각 하락했다. 집담대출(2.76%)만 유일하게 전월과 같은 금리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8월 시장금리 하락폭이 큰 데다가 직장인 단체협약대출이 많아 금리가 하락했다"며 "지난 2017년 8월 0.66%p 하락한 이후 최대폭"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 7월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연 1.75→1.50%)와 지난 9월18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연 2.00→2.25%→1.75~2.00%)의 영향으로 주요지표인 1년 만기 은행 채(AAA) 금리는 8월 연 1.32%로 전월보다 0.20%p 하락했다. 주담대 대출이 많이 연동돼 있는 5년 만기는 연 1.37%로 0.22%p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전체 금리 하락을 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장기물에 연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물의 금리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현상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3.0%p 오르며 50.6%를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다. 기업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 대비 2.4%p 상승한 42.5%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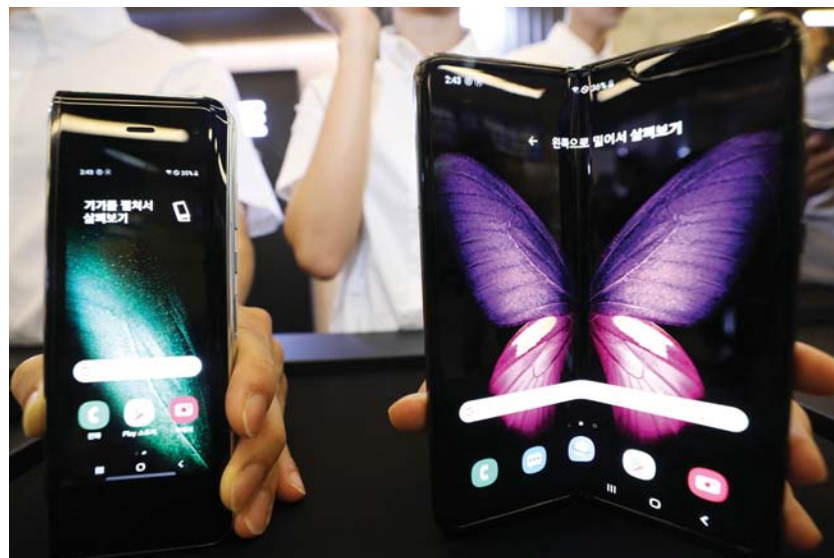
기업대출 금리는 연 3.32%로 전월 대비 0.20%p 내리며 통계 편제(199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3.65%)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2월(3.78%)부터 하락세다. 대기업(3.11%) 대출금리는 0.20%p 내리며 2017년 10월(3.11%)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중소기업(3.45%)은 0.21%p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대출을 포함하는 대출평균금리는 연 3.19%로 전월 대비 0.21%p 내렸다. 통계 편제(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다.

뉴스1

"아이폰 이용자들이 울고 싶을 것"...갤폴드 조롱하던 美 언론 '찬사'

호평 일색...삼성, 5개월만에 '반전 드라마'



27일 미국 출시를 앞두고 삼성 전자의 첫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에 대한 현지 언론의 평가가 5개월 만에 '조롱', '야유'에서 '찬사'로 바뀌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안드รอย드오토리지는 갤럭시 폴드 리뷰 기사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큰

화면이 만족스럽다.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아이폰 이용자들은 울고 싶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테크크런치의 브라이언 히터 기자도 "지금까지 폴더를 폼은 미지의 영역에 가까웠다"며 "삼성은 가장 먼저 폴더를 폼을 시도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도전한 것만으로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평했다.

이 같은 호평은 당초 지난 4월24일 미국 출시를 앞두고 디스플레이, 힌지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현지 언론이 비판을 쏟아냈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당시 미국 주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갤럭시 폴드의 화면보호막을 강제로 뜯어내며 "뭔가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퀴프, 의자를 접는 게 낫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국내에서 먼저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239만8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정식 출시되지 않은 해외 국가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웃돈을 얹은 300만원대 이상의 가격에 팔릴 정도다. 비판 일색이던 미 언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로선 약 5개월 만에 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써낸 셈이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